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대전시 부활절연합예배 ◎

- *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립니다.
- * 설교 -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대기연 회장)
- * 주최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알림]

1. 부활주일 -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 입금계좌 / 신협 131-019-689782 대전중부교회

교회에 오셔서 헌금할 수 없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온라인 헌금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에 계신 분, 출장 중이신 분,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

1. 온라인 헌금 시 이름과 헌금종류를 띄어쓰기 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00십일조, 000감사, 000선교, 000건축

2. 동명이인은 알파벳을 기입해 주시고, 두 사람 이름으로 헌금할 경우 다 기입해 주세요

예) 000a감사, 000b선교, 000000십일조, 000000꽃꽂이

[교우 동정]

1. 소천 - 2교구 황의대 집사(남2-2) 모친, 박은희 집사(비래2-2) 시모 / 5일(주일)

[담임목사 동정]

1. 대전시 부활절연합예배 대표기도 - 12일(주일) 오후 3시 / 대전제일교회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전상순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윤재룡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박선정	권영은	김정은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4. 12 (NO. 62-15)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부활주일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오후 3시
부활절 연합예배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임인성 장로(2부) / 전용주 장로(3부)
성경	눅 8:49-56
설교	예수님의 기적(13):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80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찬양팀 * 기도: 나윤석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마 28:1-10 “빈 무덤”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사사기 - 담당 교역자 -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2 부	전용주 장로	안내위원	3 여 전 도 회	
	3 부	배정만 장로	식당봉사	금 주	
	오후4	홍순영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차량운행	2호/ 이봉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운 집사 010-6804-5574	
수요일예배	1 부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 부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3일)	최영희
화 (14일)	류순례 송정숙
수 (15일)	공종호 심윤중 이원명
목 (16일)	서정자
금 (17일)	임현성
토 (18일)	황덕순 이인창 이종옥
주일 (19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12일(주일)	13일(월)	14일(화)	15일(수)	16일(목)	17일(금)	18일(토)
성경	왕하21-23	왕하24-대상1	대상2-4	대상5-7	대상8-12	대상13-15	대상16-18

♠ 꽃꽂이

* 금주: 심윤중 권사, 모현옥, 최민영 * 내주: 김재순 집사, 강경석

♠ 환우

☞ 2교구

* 김순옥 권사(비래2-2, 정구훈 집사 아내) - 허리디스크시술 / 글로벌 튼튼병원

☞ 3교구

* 이명숙 권사 (가양3-5, 하길식 집사 아내) - 체장암 / 송도외과
- 1교구 하상균 집사 모친, 김명희 집사 시모

4월 행사 안내

--	--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 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되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집단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7대 준칙을 따라 성도들의 피해방지 및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회생활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중식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4.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6.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우·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시편 91:1~7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 골 ·장석현 / 태 국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 국 ·김도형 / 태 국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 국 ·박정선 / 태 국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기독교임즈
- 가야곡중부교회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내륙흥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신도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12) : 맹인 바디매오를 고치신 기적(막10:46-52)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성경에서 눈은 지각을 상징한다.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오늘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이런 절절한 고백을 쏟아 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맹인이 고침 받은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 삶에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한다. 과연 치유의 조건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눈이 뜨일 수 있을까?

1.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십시오.

바디매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거지였다(46절). 이렇게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바디매오는 알았다. 그래서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다(엡2:3).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오직 한 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복음(Good News)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눈을 뜨는 첫 번째 단계다.

2.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고치시는 치유자란 사실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바디매오에게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소개받은 대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다. 바디매오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바디매오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치유자요,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눈을 뜨는 두 번째 단계다.

3. 장애를 극복하는 태도를 기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매오를 향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자존심상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적극적으로 장애를 극복할 줄 알았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 먹고 살 수 있는 밑천이다. 또 밤이면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렸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 가기만 하면, 자신의 겉옷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임을 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장애를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라.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드리는 사람들이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7일(금)	찬 430장	삿 11:12-28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p>입다는 자신이 ‘장관’(6절)이 아니라 ‘머리’(8절), 즉 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합니다. 전쟁에 앞서 외교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땅을 요구하는 암몬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모습은 그가 불량배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왕은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국정을 펼치는데, 본질적으로 그 정치권력은 폭력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사사가 기자는 불량배 출신 입다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던 ‘왕’이 아무리 능력 있고 잘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폭력집단의 우두머리임을 드러냅니다. 세상 권세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무장해 담대히 살아갑시다.</p>			
18일(토)	찬 420장	삿 11:29-40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p>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그는 인신제사를 서원했다. 인신제사는 암몬의 신인 밀곰(또는 몰록, 몰렉, 참조 왕상 11:5, 7)과 앞서 입다가 ‘네 신’이라 불렀던 모압의 신 그모스(24절)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서원하면서도 암몬의 신 앞에서나 행할 법한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승리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 행위가 일시적으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따랐던 입다의 모습은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p>			
19일(주일)	찬 323장	삿 12:1-15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p>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입다를 찾아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참전 기회를 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강력히 항변하며 위협합니다. 이는 분명 승리의 결과물과 명분만을 얻고자 하는 비열한 태도입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비열한 태도에 대해 세상의 왕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맞섰고,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무지와 세상 방식의 지도력이 가져다주는 비극적 결말입니다. 세속적인 왕의 삶을 따른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골고루 사사들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연합을 도우셨지만, 그 사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족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지도자의 영적 침체는 곧 교회의 침체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p>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숙녀 강진선 고한례 권미옥 김근홍(문정애) 김기성 김부치(홍선덕) 김선철(이인자) 김성현a 김순남 김순이 김재원(길준순)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김형민(윤혜성) 도경애(최춘하,최민규) 박명환(김은주) 박분선 박순병(박재상) 박은희 박정자b 서성모(이두한) 서숙자 손부영 순정숙 순찬호(이영숙b) 안장현 안중근(국은희) 양명자 양영준(서영순) 양희찬(황인순) 오연자 유화자(편용출) 윤상덕(양길용) 윤창수(김경순) 이상우(이성희) 이윤암(김종갑b) 이인창(임유례) 이재숙 이종규(이혜실) 이종훈(이지연) 임인성(조정예) 전용주(권연옥) 정경희 정흥식(유영란) 조규연(서정순b) 조화연(김형기) 조화연 채기병(최영희) 최국현(이영숙c) 최은진(한정엽) 최정숙 하용호(문희정) 한영희 홍영숙 황경숙 황양례(김종문) 무명

감사헌금

강진선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구왕성 권미옥 권소열(김순이) 권연옥(전용주) 김동춘(유덕자) 김민서 김부치(홍선덕) 김수중(김영자b) 김영천(남정혜) 김예화 김태순 김혜자 도소재 박분선 박충순 소병준(황명옥) 심윤중 안중근(국은희,안종경) 양명자 오연자 윤미경(국민정,국세은) 이영숙c 이영희 이윤성 정은아 조상용(김혜경) 조화연(김형기) 최국현 최영란b 최용호 최진수 편대성 황갑순 황양례 테라베오,더리스 무명4

선교회금

강진선 고한례 국중호 권미옥(윤석진) 권연옥 길준숙 길준순 김근홍 김기성 김병률(최정숙) 김부치 김성현 김성화(이정희) 김수중(김영자) 김순남 김순이 김연수 김영자b 김영천(남정혜,김세현,김예현) 김예화 김재원(길준순) 김정순a 김정술(최화단) 김종환(김종갑) 김진선(최정숙) 김혜자 김희경(장정금) 노광숙(노소담) 노성중(감마리아,노은서,노하준) 박명환(김은주) 박재상(유승숙) 박정자b 박준순(김은혜) 서성모 서숙자 소병준(황명옥) 송영신 순정숙 순찬호(이영숙) 안장현 양명자 양재모(강금순) 오연자 윤미경 이본구 이영학(김성순) 이인창(임유례) 이재숙 이종훈(이지연) 이혜정 임인성(조정예) 전용주 정경희 정흥식(유영란) 조규연(서정순) 조정옥(노정남) 조화연 채기병(최영희) 최국현(이영숙) 최민규(도경애) 최은진 최현순 최화단 하용호(문희정) 홍선덕 홍영숙 홍주희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미애 황양례(김종문) 5남전도회

부활감사헌금

김정순d 조화연

교회사랑천사헌금

김성현a

꽃꽂이헌금

전용주(권연옥)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3일(월)	찬 455장	삿 9:30-45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p>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불입니다. 그는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가알을 처치할 수 있는 계락을 제시합니다(32~33절). 아비멜렉은 스불의 말대로 매복했다가 아침 일찍 성읍을 기습합니다. 스불은 산에서 내려오는 백성을 발견하고 질문하는 가알을 속이기까지 합니다(36절). 그러고는 되묻는 가알에게 호언장담한 대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을 무찔러 보라고 조소합니다(38절).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웠으나 이내 도망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크게 다칩니다. 가알의 호언장담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풍에 불과했고, 결국 그는 아비멜렉에게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혹시 내게 가알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그동안 허영심으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중하게 말할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p>			
14일(화)	찬 459장	삿 9:46-57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p>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세겜 백성들을 진멸하신 후, 아비멜렉을 허망하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죽이십니다. 데베스가 어디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왜 아비멜렉이 그 성읍을 공격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세겜 성도 점령했으니 데베스도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점령했고(50절), 사람들은 망대로 도망가 거기서 농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농성하는 자들과 협상을 시도했겠지만,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통째로 불태우려 했고, 이는 그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느 여인이 던진 맨틀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으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부하에게 자신을 찢으라고 명령합니다(53~54절). 이같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형제 70명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왕이라는 칭호와, 성읍을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하려던 시도는 모두 허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인생,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심판으로 끝납니다.</p>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5일(수)	찬 453장	삿 10:1-18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p>아비멜렉 이후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사역했던 약 45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아비멜렉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안정된 세월이 지나고 사사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6절). 평안한 시절이 한 세대 이상 진행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자 급속도로 부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분노는 불타올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사가 계속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의해 온 민족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회개하고, 그제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으며 다만 건져 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15절). 이렇게 이스라엘이 겸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로 인해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1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지람과 징계는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과정이며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p>			
16일(목)	찬 370장	삿 11:1-11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
<p>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1~3절). 물론 기생 라합처럼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이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절). 하지만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은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입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했다고는 하지만(10:15), 실제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모든 원칙이나 체면은 우선순위에 밀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암울한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제외한 이전의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입다는 장로들과의 계약을 통해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자신들의 계약서에 무게를 싣는 맹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종교적 언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나쁜 습관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내게 그런 면이 있다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p>			